



##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원 스톱 쇼핑으로 제공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세계 최대의 신생회사'라는 표현. 이는 작년에 사명을 변경한 아바고에게 붙여진 명칭이다. 아날로그, 혼성신호 및 광전자 부품의 세계 최고 회사로서 작년 매출액이 18억 달러에 달하는 비상장회사. 아바고의 출생 기원은 HP의 부품사업부로 올라간다. 1999년에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의 두 번째 큰 그룹으로 분사된 뒤 작년에 다시 아바고로 개명한 이 회사는 KKR과 SLP에 의해 인수되어 각종 기술 특허 및 보호를 받으며 글로벌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전 세계에 6,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약 40,000고객사를 확보한 이 회사는 1,000여명의 아날로그 디자이너와 2,000여 개의 특허 보유 등 여러 수식으로 묘사되며 데이터 프로세싱(36%), 유선 통신(18%), 무선 통신(16%), 소자 가전(11%), 군용/산업용/자동차 분야(10%)에서 골고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미 35년 전부터 서남 아시아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현재 산호제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바고는 1970년대에 HP 브랜드가 붙은 전자 계산기에 LE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여 이 분야의 상업화에 시동을 건 주역이기도 하다. 작년도의 LED와 디스플레이 분야 매출은 무려 31억 달러로서 업계 2위를 차지했다.

엔터프라이즈용 ASIC 솔루션은 아바고의 가장 큰 수익원으로서 작년을 기준으로 이미 11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광 네비게이션, isolation, 모션 컨트롤, 무선 및 적외선 분야의 광/RF 시장 점유율은 모두 1위를 고수하고 있기도 하다.

모바일 핸드셋용 솔루션으로는



CMOS 이미지 센서를 비롯해 렌즈 포커스용 위치 센서, LED 플래쉬, 스피커폰 기능용 근접 센서 등이 꾸준한 성장세를 타며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색상 보정, 관리 솔루션으로 최근 각광을 받으며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칼라 칩 LED를 비롯해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E-pHEMP 파워 모듈 및 광포토 센서 등도 경쟁력 있는 제품군에 속한다.

이미 시작된 3G 휴대폰 시장용으로 메가 픽셀급의 화질 구현을 위한 센서와 라이팅 솔루션들을 집중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아바고는 휴대폰 속의 TV 구현에 필수적인 각종 이미징 관련 분야를

선도할 예정이다. 비디오, 디스플레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상도와 색 투과성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는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데이브 알렌(Dave Allen) 부사장은 밝혔다.

한편, 아바고는 25년 이상의 아시아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SEMATECH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바고는 2004년에 91.3%의 선적/납기일 정확도로 반도체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이 발표에 의하면 인피니언, TI, 사이프레스와 프리스케일이 각각 77.6%, 77.4%, 74.8%, 73.1%로 뒤를 이었다. **C&P**